

아직 진행중인 사법판단... “이젠 경영에 전념하게”

JY 경영복귀 1년

③ 국정농단 희생양 (끝)

대법원, 지난달부터 최종심리 시작
‘묵시적 청탁’ 인정... 그룹주가 폭락

경기 침체와 어두운 실적 전망에 기업 총수가 직접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상황까지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을 방문하며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는 아직 상고심 판결이 남은 상태다. 재계는 대법원이 이 부회장 혐의를 최종 인정할 경우 기업은 물론 국내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 ‘국정농단 희생양’ 삼성상장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부터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상고가 접수된 지 1년만이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25일 당시 이 부회장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명시한 뇌물공여액 433억원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경기도 삼성전자 화학사업장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은연 중 청탁했다는 판단이다. 쟁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건넨 말 자체를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의 경우 결국 ‘묵시적 청탁’이라고 인정하면서 마땅한 증거 없이 주관적 판단을 넣어 결정했다. 엄밀한 형사법적 잣

대를 갖다대면 무죄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지난해 2월 5일 당시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도 이들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다만 89억원 중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최종선고는 올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이 다시 한 번 구속의 기로에 선다.

◆ 정치적 판결, 산업계 어떤 영향?

12일 기업법연구소 최준선 이사장은 이 부회장이 상고심에서 유죄를 받고 다시 구속될 경우에 대해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 1심 판결 당시 지배구조 핵심 회사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삼성물산의 경우 선고공판 시작 후 무죄 선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13만 65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후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봉 소리가 울리자 전날보다 2000원(-1.48%) 떨어진 13만5000원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재판 전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다 2만5000원(-1.05%) 떨어진 235만 1000원으로 마감했다.

이외에도 삼성SDS·제일기화·삼성전기 등 삼성그룹주도 낙폭한 바 있다.

최 이사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뚜렷한 물증도, 뇌물을 줬다는 증거도, 부정청탁을 한 정황도 없다”며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낼 경우 재계 심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공정경제?… 공격경제!

당정은 최근 ‘공정경제’를 발미로 기업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계에서는 경제위기가 심화한 상황에 투자심리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기업을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부분이 대주주 의결권을 축소하거나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장하는 법안이다.

검찰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고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조준하며 또 한 번 기업 위축을 조장하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삼성그룹 고위 인사를 소환하며 총수 일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 주장도 나온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파견검사를 포함해 총원을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단일 부서로는 최대 규모다. 앞서 특수3·4부에 배당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부정 의혹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기’ 관련 부정청탁 의혹 등도 특수2부 재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준선 이사장은 “정부의 공정경제는 옳은 얘기이지만, 너무 과다해선 안 된다”며 “가령 스투어십 코드 등도 공정경제 프레임에 묶어 (기업들) 압박하는데 그것도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최 이사장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재계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개입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1면 ‘장하성 등 전직...’서 계속

여성들이 지갑 연다... ‘쉬코노미’ 시대!

LG생건, 럭셔리 브랜드 ‘후’ 1조 매출
이마트 ‘부츠’, 빈티지로 매니아 갖춰
호텔업계 ‘레이디스 패키지’도 다양화

최근 경제력을 갖춘 여성들이 크게 늘면서 여성이 소비를 주도하는 ‘쉬코노미(She+economy)’ 바람이 불고 있다. 말 그대로 ‘그녀(She)’와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고가 제품이나 다양한 업종에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여성 소비자 트렌드를 의미한다. 이에 유통·호텔업계는 여성 공략에 공들이는 모양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가의 화장품 제품에도 지갑을 여는 여성 소비자가 늘었다는 점이다.

LG생활건강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후’는 높은 인기 속에 3년 연속 1조원의 매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3분기 누적 기준) 1조 4540억원을 달성했다. LG생활건강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의 지난해 성장률은 ‘숨’의 경우 533%, ‘오후’의 경우 38%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브랜드를 보유하



‘후’ 비침 순한 미스트와 에센스. /LG생활건강

고 있지만, 단연 럭셔리 브랜드인 ‘후’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특히 ‘후’ 브랜드 안에서 고가 라인인 ‘천물단’을 따로 선보였을 정도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1년에 단 한 번 소량 생산하는 ‘프라임 리저브’ 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프라임 리저브 에피디나믹 액티베이팅 프로그램’은 한 달 분량에 가격이 10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으로 지난해 출시한 지 2주만에 완판된 바 있다.

여심을 사로잡기 위해 디자인에 힘 준 화장잡화 브랜드도 있다.

이마트가 운영



프라임 리저브 에피디나믹 액티베이팅 크림. /아모레퍼시픽

하는 H&B스토어 부츠(BOOTS)는 앞서 글로벌 화장잡화 브랜드 ‘빈티지 코스메틱’을 단독 론칭했다.

‘빈티지 코스메틱’은 메이크업 도구와 헤어 브러시, 손톱정리용품 등 뷰티 약세서리 전문 브랜드로, 영국에서 2011년 시작해 영국 부츠 이외에도 호주, 미국, 홍콩, 캐나다, 마카오 등 전 세계 11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다.

‘빈티지 코스메틱’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유통을 통해 검증 받은 상품력과 더불어 소장욕을 자극하는 개성 있는 상품 디자인에 있다.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잔잔한 꽃무늬에 파스텔 색상을 사용한 제품 패키지가 50년대 빈티지 느낌을 주는 소품으로 인기를 끌며, 두터운 매니아 층까지 갖췄다.

이마트는 지난해 화장 잡화 매출이 35% 이상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자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주는 ‘빈티지 코스메틱’을 론칭한 것.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일반 제품보다 캐릭터나 독특한 디자인을 접목한 패키지를 활용한 제품이 실제 매장서 더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업계도 여성이 소비를 주도하는 ‘쉬코노미’ 열풍에 여심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레이디스 (Ladies) 패키지 및 프로



플로럴 샤워캡과 브러쉬. /이마트

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포에버 영 패키지’를 지난 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보인다.

‘포에버 영’ 패키지를 이용하면 여성 고객을 위한 향기로운 선물로 프랑스 코스메틱 브랜드 ‘고달리’에서 선보이는 에메리티 세트(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바디로션)를 증정한다.

또한, 예비 신부와 친구들을 위해 풍선, 꽃 팔찌 등 브라이덜 샤워 파티 소품이 포함된 ‘브라이덜 샤워’ 옵션도 함께 선보여 좀 더 간편하게 파티를 준비할 수 있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뷔페 레스토랑 아리아에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레이디스 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주중 점심 이용 시 여성 4인 이상 고객에게 바닷가재와 안심 스테이크 플레이트 1개를 무료로 제공한다.

프로모션을 기획한 식음팀 이희중 팀장은 “여성 소비자들이 크게 늘면서 쉬코노미 신조어가 생길 만큼 호텔에서도 여성 고객들이 아주 중요해졌다. 올해 처음으로 여성 단체 고객들을 위한 신규 프로모션을 준비해 아리아 점심 매출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이미지.

전 행정관, 금융사 상무로

문 전 비서관은 작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선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문 전 비서관 임명에 대한 ‘사전 내정’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가 JDC 이사장직을 8개월간 공석으로 비워뒀다가 문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자마자 임명했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고등검찰청은 지난 1월 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측이 지방선거 과정 때 제기한 ‘문 전 비서관 뇌물수수 의혹’을 기각 결정했다. 후문이 갈수록 커지자 문 전 비서관은 이사장 취임식 때 야권 비판에 대해 “공모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와중에 ‘30대 후반’ 젊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재취업마저 도마에 올랐다. 한정원 전 행정관이 행정관직을 내려놓고 2개월만에 민간금융사인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영입된 것이다.

한 전 행정관이 메리츠금융 상무로 이직한 사실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개한 ‘2019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한 전 행정관은 지난 1일 메리츠금융 브랜드전략본부장(상무) 직함으로 입사했다. 한 전 행정관의 퇴직 시점이 1월인 점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백기 없이 이직에 성공한 셈이다.

문제는 한 전 행정관이 언론계 경력은 풍부하지만 금융계 경력은 미미하다는 후문이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청년들의 취업은 물론, 중장년층의 재취업도 막막하다. 그러나 ‘청와대 이력’을 가진 이들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에 상관 없이 수월해 보인다”며 “어떤 이에게는 어려운 취업·재취업이 어떤 이들에게는 수월하니 참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우승준 기자 dn1114@